

진흥회 소식

본회, 이감열 상근부회장 취임



이감열 신임 본회(회장 윤종용) 상근부회장이 지난 5월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기획예산과장, 상무관, 섬유생활산업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했으며 자원정책국장, 자본재산업국장, 무역조사실장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 상근부회장은 취임사에서 “디지털전자 시대를 맞이해 진흥회 회원사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도 적극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변화와 혁신에 적극 노력해 한국의 전자산업 위상에 걸맞게 진흥회를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특히 자본재산업국장 시절 포스코 민영화, 한국중공업 민영화, 대우자동차 노사문제 등 당시 자율적으로 추진된 7대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의 현장에서 직접 뛰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에는 모 월간지가 선정한 한국

을 이끄는 100대 관료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본회, 전자업종 퇴직기술인력 온라인 중개센터 개설

본회(회장 윤종용 <http://www.eiak.org>)는 지난 4월 29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자업종 대기업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산업 퇴직 기술인력 온라인 중개센터’를 개설했다.

이 온라인 중개센터는 전자업종 대기업에서 퇴직한 기술인력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 인터넷사이트로 전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검토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 대기업은 우선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 3사며 중소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대상 기업을 확대기로 했다.

‘글로벌 전자부품 e마켓’문연다

국내 e마켓플레이스 가운데 전자부품분야가 글로벌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할 첫 사례로 등장한다.

오는 6월 한국과 일본의 전자부품 시스템을 연계한 ‘한·일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가 전세계 전자부품 구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 첫 ‘글로벌 e소싱 마켓플레이스’로 탄생할 전망이다. 연말까지는 중국과 대만의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까지도 연계할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동북아 전자부품 허브사이트’로 자리매김하리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본회(EIAK·<http://www.eiak.org>)는 한·일간 전자부품 시스템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전자정보산업협회(JEITA)와 운영중인 양국의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에 오는 6월까지 e소싱 기능과 싱글사인온(SSO)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로 재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해온 유료화를 본격 적용해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의 성공적인 유료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연말까지 한·일 e마켓플레이스 표준을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의 전자부품 시스템을 연결시켜 동북아 전자부품 DB의 온라인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동북아 전자부품 허브사이트가 완성되면 전세계 전자부품 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한·중·대·일 4개국의 전자부품 정보를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부품 구매 형태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각종 전자부품업체들의 구미·유럽 등 해외시장 판로 확보가 쉬워져 시장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복 EIAK 부장은 “지난해 1월 한·일간의 검색엔진을 설치한 이후 지난 1년간 통합모듈을 개발했으며 싱글사이드 환경을 마련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자부품 소싱서비스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 유력업체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 편의성 극대화=이번 개편은 전자부품 구매 고객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싱글사이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일 양국 사이트 중 한 곳에서 로그인할 경우, 양측의 관련 사이트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한·일 양국의 전자부품 품목을 단계적으로 매칭시켜 하나의 사이트에서 양국의 전자부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양측 사이트에서 각각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해오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양국의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에 구축된 전자부품 DB의 60% 가량을 매칭시켜 6월 재오픈시에는 양국의 전자부품을 단일화면에서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양측의 전자부품 DB는 약 779개 항목으로 이중 반도체 36항목, 수동소자 433개 항목 등 총 469개(전체 대비 60.3%) 항목의 매칭을 완료시켰다. 검색엔진과 싱글사이드 부분 등 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일

렉트로피아(대표 이충화)가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구현 등 구체적인 일정과 기반사항 협의를 위해 22, 23일 일본 샌다이현에서 양국의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료화 성공과 동북아 허브사이트 부상=양국의 통합사이트가 재오픈되면 유료화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연회비 600달러로 책정돼 있으며 전세계 부품 구매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료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북아 허브사이트로 확대키 위해 지난해부터 중국측과 논의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업체가 많은 대만과의 연계를 위해 대만 정보산업센터(III)와 실무 접촉에 들어갔다.

본회, 콘텐츠 원자재 역관세 개선 건의

본회는 알루미늄 박·필름 등 콘텐츠용 원자재에 대한 역관세 개선을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 했다.

본회 부품소재팀은 정보기술협정(ITA) 체결로 지난 2000년부터 통관시 콘텐츠 완제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 반면, 콘텐츠 재료비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박·필름 등 원자재에 대해선 8%의 관세가 적용돼 국내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부품소재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으로 콘텐츠 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관세 영세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품소재팀 임호기 팀장은 “역관세가 개선되면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가격경쟁률이 약 2~4% 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달 ITA 체결로 인한 다른 원자재 품목에서의 역관세 현황도 파악, 정부 측에 적극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